



2026. 6. 18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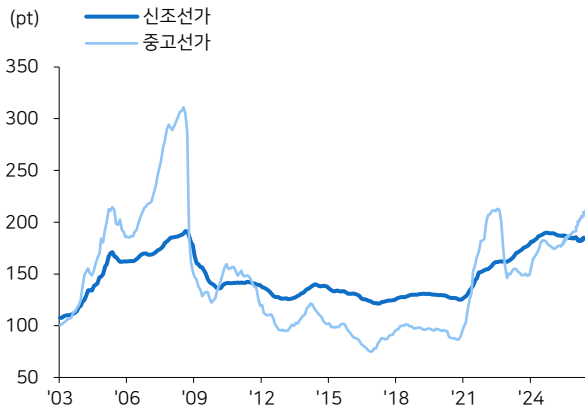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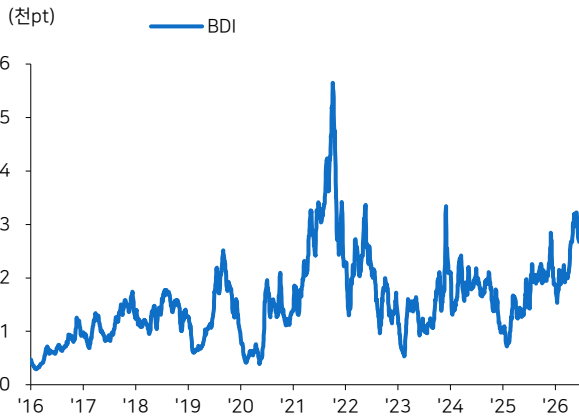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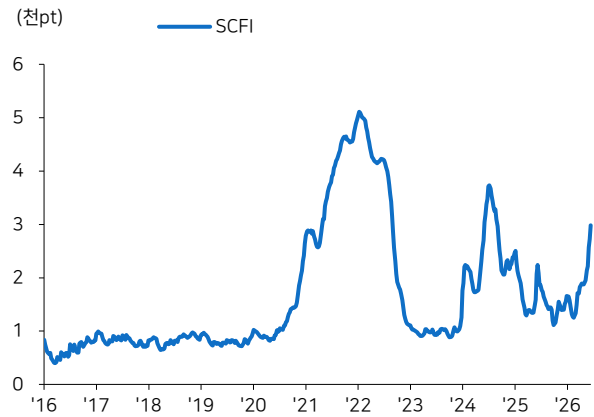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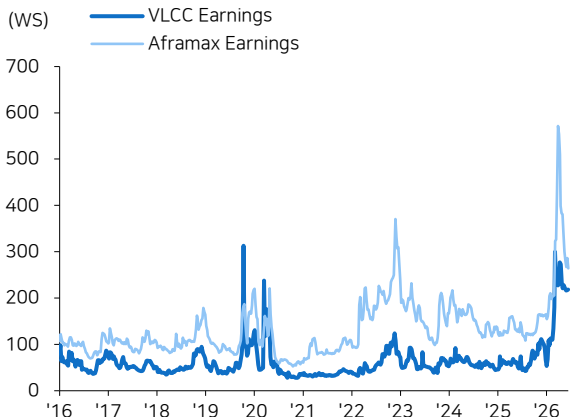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70.0p (-5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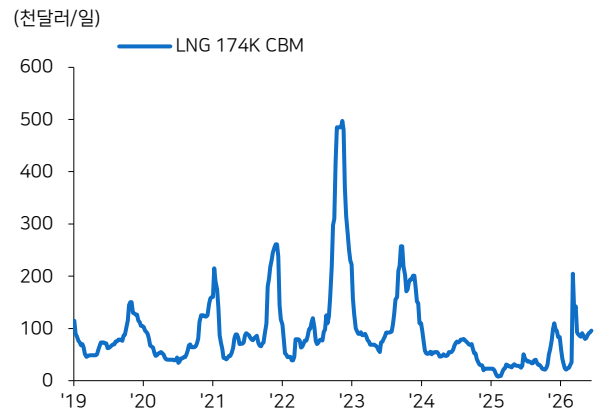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985.2(+258.7 WoW)



VLCC Spot Rate 218.3WS (+1.6p WoW)



LNG Spot 운임 96.0천달러 (+3.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美상원 군사위, 비전투함 해외 건조 길 열어... '마스가' 탄력 (동아일보) <https://zrr.kr/iJQEqr>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며 전략수송선 및 벌크연료선 등 비전투함에 한해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그간 미국 내 건조를 고수해온 미 해군 함정 시장의 빗장이 풀리는 의미 있는 변화로, 한국 조선사들의 대미 함정 수주 전략인 MASGA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전해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은 미국 내 조선 및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현지 파트너와의 기술 협력 및 생산 거점 확보 등을 통해 미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알려짐.

삼성중공업, 中 의존 줄이고 美에 전진기지...글로벌 재편 속도 (MTN 뉴스) <https://zrr.kr/i35IKK>

삼성중공업이 미국 현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SAMSUNG HEAVY INDUSTRIES USA CORP와 솔루션 법인을 델라웨어주에 신설하며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이번 법인 설립은 최근 본 계약을 체결한 Delfin의 FLNG 프로젝트를 비롯해 General Dynamics NASSCO 및 DSEC과 협력 중인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 등 대미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전해짐. 또한 삼성중공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PetroVietnam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생산 기지 다변화를 추진하며, 거제조선소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집중하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이어 훈련함 '정조준'...온타리오 조선소 협력 (더구루) <https://zrr.kr/sbs6Gp>

한화오션이 캐나다 온타리오 조선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훈련함 사업 참여를 본격적으로 모색한다고 보도됨.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로,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의 해밀턴 조선소 현대화를 돕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문과 숙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캐나다 현지 조선 산업의 역량 향상을 이끈다고 전해짐.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해외사업 단장(부사장)은 양사의 파트너십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캐나다 산업의 미래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이어 훈련함 프로젝트까지 수주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캐나다 FLNG 프로젝트 지분 인수-장기 구매 추진 (더구루) <https://zrr.kr/mf2IEs>

한화오션이 캐나다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Kanata Clean Power & Climate Technologies Corp와 LNG 사업 협력을 위한MOU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오션은 지분 투자와 더불어FLNG 건조 및 유지보수, LNG 운반선 확보 지원 등 인프라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해짐. 이는 한화오션이 캐나다의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앞두고 현지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잠수함 사업을 넘어 광범위한 에너지 산업 협력을 통해 캐나다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알려짐.

ExxonMobil to supply LNG to South Africa in milestone deal (Upstream) <https://zrr.kr/l5otTq>

ExxonMobil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랜드 에너지 터미널(ZET)에 LNG를 공급하는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ZET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LNG 수입 터미널로, 국영 전력회사인 Eskom이 3,000MW 규모의 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터미널의 핵심 고객으로 참여한다고 알려짐. 이번 계약은 모잠비크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LNG를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짐.

Sanctioned tankers dodge English Channel after shadow fleet seizure (TradeWinds) <https://zrr.kr/WB686o>

영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선박인 Smyrtos를 처음으로 나포하자, 해당 항로를 이용하던 제재 대상 선박들이 영국 해안을 우회하는 등 대규모 항로 변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영국 해병대가 Smyrtos를 나포하고 선장인 Ajay Pant를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Sonar와 Maini 등 제재 대상 선박들이 영국 해협 진입을 포기하고 아일랜드 서해안 등 더 먼 우회 항로를 택하고 있다고 전해짐. 유럽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0조를 근거로 국적 불명 선박들에 대한 나포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선장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박 소유주 및 운영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